

세계 속에서의 한국문학: 해외진출 언어권 확대 방안 연구

이구용*

-차 례-

1. 들어가는 글
2. 세계 속에서의 한국문학
 - 2.1. 20세기 해외문학과와 21세기 출판저작권 에이전트
 - 2.2. 세계출판시장에서의 한국문학
3. 한국문학 해외진출 언어권 확대방안
 - 3.1. 인력양성 정책
 - 3.2. 해외 현지 에이전트·번역가와와의 파트너십 구축
 - 3.3. 정부의 중장기적 정책지원 수립
4. 나가는 글

*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국문초록]

본 논문은 한국문학이 글로벌 출판시장으로 본격적 진출의 문을 연 2005년부터 글로벌 무대에서 ‘K-문학’이란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 2024년 상반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난 20년간 한국문학 해외진출 상황을 주요 작가 작품 중심으로 점검하면서 그간 한국문학이 어떤 과정을 통해 해외로 진출하였는지를 살폈다. 2005년 김영하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로 한국문학 수출 길을 연 이후,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거쳐 손원평의 『아몬드』와 김호연의 『불편한 편의점』에 이르기까지 한국문학 해외진출 사례를 통해 한국문학의 위상이 글로벌 문단과 출판시장에서 격상됐으며, 문학 장르도 일반 성인문학에서 청소년대상문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지는 가운데 한국문학이 지닌 각각의 개성이 해외 독자들에게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 문학상이나 베스트셀러에 오른 사례들을 통해 살폈고, 향후 한국 출판업계와 정부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한국문학 세계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세계 권역별로의 차별화된 진출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글로벌 출판시장에서의 한국문학에 대한 현황 점검을 통해 한국문학 해외 언어권 확대 진출을 위한 비전 제시를 통해 한국문단과 한국출판시장은 물론 한국출판 문화정책 수립 관계자들과 유의미한 아이디어와 통찰을 공유하는 데 있다.

주제어 : 한국문학 해외진출, 번역출판, 글로벌 출판시장, K-문학, 출판인력양성, 한국출판콘텐츠 해외 진출전략

1. 들어가는 글

본고는 한국문학이 아시아는 물론 영미·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출판 시장으로 본격적 진출의 문을 연 2005년부터 글로벌 무대에서 ‘K-문학(Literature)’이란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 2024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난 20년간의 한국문학 해외진출 상황을 주요 작가 작품을 중심으로 점검하면서 그간 한국문학이 어떤 과정을 통해 해외로 진출하였는지를 살피고, 이어 한국문학이 더욱 다양한 언어권으로의 진출 확대를 위한 효과적 방안연구를 통해 한국문학 세계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문학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문학번역원과 민간기구인 대산문화재단이 주축이 되어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시·소설 등을 중심으로 영미권을 비롯한 세계 다양한 언어권에서 번역·출판돼 오고 있다.¹⁾ 특히 2004년 시점까지 대부분의 한국문학의 해외 진출은 언급된 두 기관의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 상대적으로, 국내외 출판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저작권 에이전트(literary agent)나 출판사 소속 번역판권(translation rights) 담당 편집자들의 소개와 거래를 통한 해외 번역판권 수출 진행은 거의 없던 시절이었다. 산업적 환경기반에서의 통상적 판권 세일즈 딜을 통한 번역·출판·유통보다는 목적하는 특정 언어로의 번역·출간 자체에 일정부분 목표를 설정한 후 그것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통한 방식을 통해 진행되다 보니 해외에서 번역본이 출간되어도 해당 도서가 자체적인 시장경쟁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서점가에 머물며 일반독자들과 상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당시 그렇게 번역된 한국문학은 해외 현지 일반독자들이 쉽게 만날

1) 정명교,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향한 문학적 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 23 No. 2, 국제비교한국학회, 2015, 216면, “한국문학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가 민간과 국가 층위에서 설립되었다. 우선 ‘교보생명’의 출연으로 ‘재단법인 대산재단’이 설립되고 1993년부터 “대산문학상, 한국문학 번역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국가차원에서는 1996년에 ‘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금고’가 설립되고 2001년 ‘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으로 개명하며 조직이 확대되었다. 2005년에 다시 명칭이 바뀌어 현재 ‘한국문학번역원’(특수법인)이다.”

수 있는 서점보다는 공공·대학 도서관, 문화원, 혹은 한국문학이나 한국학, 또는 아시아학에 관심 두고 연구하는 학생이나 학자군(群) 대상 중심으로 손 닿기 가까운 공간에 주로 비치되어 이용되는 한계를 드러냈다. 오랜 기간 한국문학이 영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출간돼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학의 세계화가 늦어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상술한 바에 기인한다는 것이 연구자의 의견이다. 불특정 다수의 독자 디맨드에 기반하여 형성된 출판 시장에서의 유통·판매를 통해 산업적 이익을 창출하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다양한 층위의 가치를 확대·공유하고자 하는 시장 친화적 정책적 전략보다는 공급자에 해당하는 한국 정부(또는 공공기관)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작품 중심으로 우선 선정한 후, 그것이 한국을 대표할 만한 문학으로서 우수한 예술적 가치를 담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를 통해 한국과 한국문화를 전파하고자 주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대중의 의견과 기호가 시장을 형성하고, 그것이 트렌드로 발전하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소프트파워를 확보하여 영향력 있는 문화시장을 구축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고민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런 구도에 가지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는 2005년 김영하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가 영미권(미국)으로 진출하면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²⁾ 이것은 영어판권 딜을 거쳐 성사에 이르기까지 특정 기관의 지원이나 관여 없이 작가를 대신하여 출판 시장에서 활동하는 출판저작권 에이전트와 해외 출판사 담당 편집자를 통해 구축된 성과로 기록되는 거의 첫 사례에 해당한다. 김영하의 이 작품은 한국의 에이전트가 당시 해외시장 분석을 거쳐 현지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타이틀로 사전 선정한 후 영미권에서 활동하는 에이전트와 협력하는 가운데 미국의 유통출판사 편집자와의 긴밀한 소통과 거래를 통해 수출이 성사된 사례이다.

2) 김영하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의 영어판권(World English Language rights)은 미국의 저명한 출판사 중 하나인 하코트(Harcourt, Inc.)로 2005년에 팔렸고, 2007년 7월 『I Have the Right to Destroy Myself』라는 타이틀로 출간되었다. 이 출판사는 1919년 미국에서 설립된 출판사로 루이스(Sinclair Lewis), 엘리엇(T.S. Eliot), 그리고 오웰(George Orwell) 등의 다양한 문학작품을 출간해 오고 있다.

김영하의 이 작품을 시작으로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한강의 『채식주의자』, 편혜영의 『홀』, 김애란의 『두근두근 내 인생』, 손원평의 『아몬드』 등을 포함하여 수많은 한국 작가의 문학 작품들이 출판계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출판저작권 에이전트를 통해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현재 세계 40여 개국에서 출간돼 오고 있다.

2023년으로 들어서면서 드러난 주목할만한 내용 중 하나는 문단권역 작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대중적 서사의 매력으로 독자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는 비문단 권역 작가들의 작품들 또한 세계출판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해방 전후, 한국전쟁, 민주화 과정 등의 시대를 관통해 오면서 한국이 지닌 여러 담론에 대한 탐구, 그 영역 안에 존재해온 인간의 내면적 자아 갈등에 대한 탐색,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인간과 사회가 지닌 인류 보편적 사유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진지하여 해외 독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다소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던 한국문학에 대한 인상의 지평이 더욱 넓어지는 기회를 맞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전에 주로 경험했던 한국문학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점차 경험하게 되면서 해외 독자들 간에 한국문학의 다양성을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출판시장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으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그 중심에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정보라의 『저주토끼』를 비롯, 박상영의 『대도시의 사랑법』, 김호연의 『불편한 편의점』, 이미예의 『달리구트 꿈 백화점』, 그리고 황보름의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등 다양한 문학 작품들이 합류하고 있다.

본론 2장에서는 한국문학을 세계무대로 진출시키기 위해 관심갖고 노력한 일제강점기의 해외문학과와 한국전쟁 이후 국제펜클럽, 그리고 21세로 진입하면서 그 역사를 계승하고 있는 출판저작권 에이전트의 시도를 살피고, 그런 노력과 시도를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어떤 결실들이 지속·확대돼 오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3장에서는 한국문학 해외진출 언어권 확대방안으로서 인력양성 정책, 에이전트와 번역자 간의 긴밀하고 전략적인 파트너십 구축방안, 그리고 정부의 중장기적 정책지원 전략안을 살피고자 한다.

2. 세계 속에서의 한국문학

2.1. 20세기 해외문학과와 21세기 출판저작권 에이전트

‘세계문학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루어진 무역과 교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괴테가 지적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김옥동은 세계문학의 가치를 역설한다.³⁾ 괴테의 이 지적은 문학번역을 통한 국가 간 소통과 더불어 문학과 예술을 공유하고 향유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문학과 예술의 교류에 대한 일차적 가치와 의미에 대한 역설은 물론, 국가 간 비즈니스 교류를 통한 산업적 맥락에서의 시장형성 가치 또한 내포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 세계 3대 출판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다.⁴⁾

이런 맥락에서 세계 최대규모의 도서 박람회인 프랑크푸르트도서전(Frankfurt Book Fair)⁵⁾이 독일에서 열리고 있다는 것은 우연한 일은 아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독일이 도서 저작물을 활발히 수출·입하는 가운데 오래전부터 자국 문학의 해외 진출은 물론 해외문학을 도입하여 번역·출판해오고 있는 것도 괴테가 중요시하는 ‘문학번역과 소통’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출판선진국으로서의 ‘독일’을 살피는 것도 있지만, 국가와 문화간 소통에 문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출발 텍스트를 언어와 문

3) 김옥동, 「최남선·이광수·김억과 세계문학」, 『궁핍한 시대의 한국문학: 세계문학을 향한 열망』, 연암서가, 2022, 99면.

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독일 출판정책 연구」, 2015,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117면, “독일은 세계 3대 출판강국으로서 출판 시장과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오랜 역사와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출판선진국이다.”

5) 2023년 10월 24일자 메일로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최측이 전시장 관람자들에게 행사 후 발송한 공식 메일 내용에 따르면, 2023년 75회를 치른 이 도서전에는 비즈니스 전문가와 일반 참여자 수가 215,000명에 달했고, 95개국에서 4,000개의 업체가 전시에 참여했으며, 7,000개의 미디어 업체가 참여하여 현장 소식을 전했고, 전시 기간동안 2,600개의 이벤트가 진행된 것으로 집계·확인되었다.

화번역을 통해 현지화된 도착 텍스트로 독일 독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와 전통을 꾸준히 유지해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독일문학의 해외 진출을 위한 시도와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독일문학이 영미권을 비롯하여 세계출판시장에서 다양한 언어로 번역·출판돼 오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무릇 신문의 창설은 외국문학수입으로 그 記錄을 비롯한다. 우리가 외국문학을 연구하는 것은 결코 외국문학연구 그것만이 아니요, 첫째 우리 문학의 건설, 둘째로 세계문학의 互相範圍를 넓히는 데 있다.”⁶⁾는 메시지가 있다. 이것은 한국출판이 세계출판시장과 활발한 출판 저작권 수출입 교류를 시작하던 1995년⁷⁾ 전후 전후에 나온 것이 아니며, 한류 출판이 본격화되던 2000년대 초에 나온 메시지도 아니다. 해외문학 도입을 넘어 한국문학의 지평을 세계무대로 확대하고자 하는 그 열망의 메시지는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 해외문학파⁸⁾를 통해 나온 비전이었다. 김영민은 해외문학파가 수행한 역할에 “조선 문예가도 장래 세계적으로 비약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⁹⁾는 것을 포함시키면서, 해외문학파가 하고자 했던 일 중 “조선문학 작품을 번역하여 외국에 소개하는 일”¹⁰⁾을 명시하고 있다. 해외문학파의 활동은 광복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국제펜클럽의 한국본부를 주도적으로 조직한 것도 이들이었다. 국제펜클럽 한국지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백철은 “이제부터 우리 작품을 세계시장으로 내보내자! 나는 금년 우

6) 『海外文學』 창간호 권두사. 이 권두사는 1926년 12월에 작성되었고, 1927년 1월 17일에 서울에서 인쇄·발간됐다. 1925년 일본 도쿄에서 유학하던 한국 유학생들 중 이하운, 정인섭, 김진섭, 이현구 등 외국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외국문학연구회’를 조직하고, 이어서 이 잡지를 발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연구회 단체를 ‘해외문학파’로 불렀다.

7) 한국 정부는 1994년 12월 15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가입하여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1995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회원국이 되었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협정 규정에 따라 이때부터 한국은 출판저작물 수출입 무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8) ‘해외문학파’에 대한 간단한 기원은 위 각주 6) 참조.

9) 김영민, 『한국근대문학비평사』, 소명출판, 2012, 437면.

10) 위의 책, 같은 면.

리 문학계의 일을 전망하는데 있어서 먼저 그런 의미의 어떤 출발이 있기를 희망하고 싶다.”¹¹⁾고 1950년대에 역설하였다. 한편, “이것은 한국문학과 문인을 다시 해외로 수출시키자는 노력이라고 하겠다. 이미 한국에서 ‘세계작가대회’를 개최한 일도 있고, 필자의 글을 위시하여 다수의 한국문학이 외국어로 번역 소개되는 등 이미 그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¹²⁾ 정정호가 「백철의 국제문화교류 활동에 관한 시론(試論)」¹³⁾에서 이명재가 언급한 내용을 인용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70년대에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이 꾸준히 그 맥을 이어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그리고 그 시점으로부터 50년이 흐른 지금, 한국문학은 ‘K-Lit’, ‘K-Literature’, 혹은 ‘Korean Literature’와 같은 대명사로 불리면서 세계 문단에서는 물론이고 세계 출판시장에서 그만의 확고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대로 진입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문학은 지금으로부터 1백여 년 전 조선문학의 해외로의 번역 진출에 대한 열망과 염원이 심은 씨앗이 받아하여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이어져 왔고, 그것이 세기를 달리하여 맞은 시점에 글로벌 출판시장으로 한국문학을 진출시키고자 하는 출판 현장에서 활동하는 출판저작권 에이전트의 역할로 이어져 당대에 어울리는 전략적 시도와 전개를 통해 2005년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한국문학이 수출되는 시대를 열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한국 문단과 한국문학의 발전과 세계화를 향한 해외문화과의 고민과 역할, 그리고 그들이 당시 구축했던 비전이 1백 년이 흐른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하며, 그들의 선구적 헤안과 노력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한국

11) 백철, 『문학의 개조』, 신구문화사, 1959, 299면.

12) 정인섭, 「해외문화과를 전후한 외국문학의 수용」, 『광장』, 111호, 세계평화교수협의회, 1982, 98면.

13) 정정호, 「백철의 국제문화교류활동에 관한 시론(試論)」, 『우리文學研究』 25집, 우리문화회, 2008, 411-412면, “백철 박사는 실로 일본에서 프로 시인으로 출발하여 30년대 초 농민문학의 문체제기 이래 인간묘사론에 이은 휴머니즘론 주장과 50년대 말의 신비평소개...(중략)...우리 문단의 거목으로서 70년의 세계작가 [P.E.N] 대회를 서울에서 주관하는 등, 한국문학의 국제문화교류에도 크게 이바지한 공로자이다.”(이명재, 「서문을 대신하여」 백철 『인간 탐구의 문학』, 창미사, 1986, 4면, 개인용.(밑줄은 연구자의 강조임).

문단과 출판계가 함께 계승해 가야 할 가치로 삼을만하다.

2.2. 세계출판시장에서의 한국문학

연구자는 에이전트로서 1990년대 중·후반, 영미·유럽 주요 출판사에 한국 작가의 책들을 소개했다가 명확한 이유에 대한 언급 없이 거절당한 예를 여러 차례 경험하였다. 나중에 판단한 결과, 그 이유는 당시 해외 출판인들이 판단하기에 소개받았던 책들이 현지 대중 독자들에게 어필할 만큼 뛰어난 대중성도 없고, 책을 이해하기 쉽게 준비된 세련된 영문소개자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한국문화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낮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라 판단한다. 또 다른 예도 있었다. 그것은 원작의 문제가 아닌 번역상의 문제였다. 준비된 번역원고를 이용할 수 없다는 평을 듣고 되돌려 받은 것이다. 번역된 영어의 질이 훌륭하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한국, 한국문화, 한국출판물, 그리고 한국문학에 대한 해외의 관심과 이해가 부족했던 시절이었고, 글로벌무대로 진출시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문학작품을 포함한 한국출판콘텐츠, 그리고 수출을 위한 에이전트의 경험과 노하우 등 견지해야 할 유효한 아이디어와 전략도 부재하던 시절이었다. 다시 말해 거의 모든 것이 열악했던 시기였다. 그러나 글로벌 무대에서의 한국문학의 위상은 2005년 이후 빠른 속도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앞서 언급한 예와 같이 해외 출판시장에서 한국책을 소개받은 해외 출판인들에게는 거절이 일상이었지만, 그 이후로는 소개하면 적어도 검토는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고, 다음으로는 한국으로부터 소개받기 전에 미리 자체적으로 확보해둔 관심 있는 특정 작가나 작품에 대해 관심을 표명해오고 있는 상황으로 발전했으며, 2024년 현재에는 해외 다양한 언어권에서 한국문학을 중심으로 한국출판물에 대해 자발적인 사전 검토 후 판권구매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며 접근해오는 상황으로 전환되었다. 한국문학을 비롯한 한국 출판저작물이 해외 출판시장으로의 진출에 활기를 띠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세계출판시장의 중심으로 진입하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연구자는 2001년 전후,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한류 기류가 형성되면서 베이징도서전에 참가하기 시작했고, 2005년을 전후하여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을 중심으로 아세안 출판시장과 비즈니스 교류 물꼬를 트면서 태국 방콕도서전 참여로 교류 영역을 확대하였다. 당시 베이징도서전이나 방콕도서전에 참여하는 한국 출판관계자 규모는 소수의 일부 특정 출판사 저작권 담당자와 출판저작권 에이전트가 참여하는 수준으로, 그 수를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영국 런던도서전을 찾는 한국 출판관계자 수 또한 적던 시절이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출판계가 독일 프랑크푸르트도서전, 미국 북엑스포아메리카(BEA), 이탈리아 볼로냐아동도서전, 그리고 일본 도쿄국제도서전 중심으로 참여하던 시절로, 한국저작물의 해외수출보다는 한국출판이 해외저작물에 대한 한국어 번역판권 수입에 주력하던 시기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김영하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가 2005년에 영미권으로 진출하고, 이듬해인 2006년 조경란의 『혀(Tongue)』가 바로 미국의 블룸즈베리 출판사로 수출되었다. 두 해 동안의 연속적인 영미권으로의 성공적인 한국문학 수출 경험은 에이전트인 연구자에게는 문학 수출에 대한 준비과정과 세일즈 노하우를 확보하게 되는 유용한 학습사례가 되었고, 나아가 한국출판저작물에 대한 해외로의 수출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도 유용한 공유 정보자산이 되었다.

2009년에는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Please Look After Mom)』가 미국의 크노프(Knopf)와 영국의 와이덴펠드 앤 니콜슨(Weidenfeld & Nicolson, W&N)으로 팔렸다. 이 작품은 2011년 4월 초 미국에서 출간되어 한국문학으로는 유일하게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영미권과 유럽을 중심으로 소개 당시부터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이 소설은 2012년 봄, 한국 작가로서는 처음으로 영국 ‘맨(MAN)’재단이 수여하는 ‘맨 아시아 문학상(MAN Asian Literary Prize)’을 수상했다. 신경숙은 2011년 이후 세계 출판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다. 『엄마를 부탁해』는 마케도니아에 이른 것까지 2023년 말 현재 총 41개국으로 진출하여 번역·출간돼 오고 있다. 글로벌 무대에서의 이 작품의 성공은 신경숙 개인에게는 물론 한국

문학과 한국출판콘텐츠 전반에 청신호를 밝힌 작품으로 역할하고 있다. 특히 세계출판시장에서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황선미의 『마당을 나온 암탉(The Hen Who Dreamed She Could Fly)』은 미국의 펭귄북스와 영국의 원월드(Oneworld)로 수출되어, 각각 2013년 말과 2014년 초에 출간되었고, 2023년 말 현재 31개국으로 번역판권이 팔렸다. 한강의 『채식주의자(The Vegetarian)』는 영국에서 2015년 1월에, 미국에서는 2016년 2월에 각각 출간되었고,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상(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 수상작이 되면서 한강은 전 세계 독자가 주목하는 작가로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이후 『채식주의자』는 세계 출판시장에서 한국문학과 한국출판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공지영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Our Happy Time)』이 영국 쇼트북스(Short Books)로, 이정명의 『별을 스치는 바람(The Investigation)』이 영국의 맥밀란(McMillan) 등으로 수출되는 등, 그 외에도 다양한 한국 작가의 문학작품이 영미권으로 진출하여 번역·출간되었고, 이어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전 세계 독자들에게 확대되면서 한국문학은 글로벌 일대에서 읽고 즐길 수 있는 상황으로 성장, 발전하였다. 김영하의 소설이 해외로 진출하던 시점인 2005년을 기준으로 보자면 불과 10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한국문학이 이끌어낸 성과이자 변화였다. 그간 한국문학을 영어로 번역하는 번역가의 수가 증가했고, 한국문학이 해외 출판시장에서 예술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사례가 늘면서 영미권은 물론이고, 기타 다양한 언어권에서 빠른 속도로 한국문학에 대한 저변이 확대되었다.

이어 2017년 7월, 편혜영의 단편 '식물애호(Caring for Plants)'가 세계 권위의 문예지 「뉴욕커(The New Yorker)」(2017년 7월 10일자)지에 게재되는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같은 해 8월에는 이 단편을 장편으로 확장해서 쓴 장편소설 『홀(The Hole)』이 미국에서 출간됐다. 편혜영의 『재와 빨강(City of Ash and Red)』은 2017년 초 폴란드에서 ‘2016년 올해의 도서’로 선정되었다.¹⁴⁾ 『홀』은 2018년 7월 미국에서 한국작가로는 처음으로 ‘셜리잭슨상(The Shirley Jackson Award)’을

수상했다. 2020년 7월과 8월에 영국과 미국에서 각각 번역 출간된 윤고은의 『밤의 여행자들(The Disaster Tourist)』은 2021년에 영국에서 추리소설 번역부문 ‘대거상(The 2021 CWA Crime in Translation Dagger)’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리고 2022년 정보라의 『저주 토끼(Cursed Bunny)』와 박상영의 『대도시의 사랑법(Love in the Big City)』, 그리고 2023년에는 천명관의 『고래(Whale)』가 ‘2022 인터내셔널 부커상(International Booker Prize) 후보에 오르는 등, 한국의 다양한 문학 작품들이 세계 문단과 출판시장의 중심에서 주목받고 있다.

영미권으로 진출한 문학작품 중심으로 상기 열거한 사례 외에도, 언급되지 않은 더 많은 작가와 작품들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미권은 물론, 유럽·아시아 등을 비롯한 세계 다양한 언어권에서 번역·출간되는 가운데 더욱 확대된 언어권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주목할 부분이 번역이다. 영미·유럽출판시장으로의 본격적인 한국문학 수출을 시도하던 초창기인 2005년 당시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1년에 한 작가의 장편소설 한 작품을 수출하는 데 그쳤다.¹⁵⁾ 당시로서는 그것 자체도 큰 성과였지만, 사업적으로 매력적인 성과는 아니었다. 초창기 성과가 활발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영미권 출판시장에서 검증된 유능한 번역자 확보가 충분치 않았던 것과 그로 인해 소개하고자 하는 작품에 대한 영문소개자료(English synopsis)와 샘플번역(English partial translation) 등의 준비가 원활치 않았다는 사실이다.¹⁶⁾ 그러나 ‘신경숙 성과’ 이후 번역자 김지영 외에 또 다른 유능한 번역자들이 한국문학 해외수출 시장에 꾸준히 합류하게 되면서 한국문학의 해외 소개를 통한 번역·출판은 활기를 띠게 되었다.

14) 한 해 동안 폴란드에서 출간된 책(번역서 포함)중 성인도서와 아동도서에서 각각 한 타이틀씩 선정하는데, 『재와 빨강』이 성인대상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것이다.

15) 출판저작권 에이전시의 케이엘매니지먼트를 통한 수출 사례 기준.

16) 한국문학을 세계출판시장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국내외 활동 에이전트(literary agent)의 절대적인 부족 역시 또 다른 한 가지 이유였다.

3. 한국문학 해외진출 언어권 확대방안

권영민은 “한국문학은 민족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범세계적인 인류의 보편성을 추구하면서 널리 확대되어야 한다.”¹⁷⁾고 역설한다. 여기서 ‘고유성과 특수성’은 한국문학만이 지닌 개성으로 다른 영역의 문학과 차별화되는 ‘독창적 목소리’로서, 해외 독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한국문학을 통해 읽고 감상하고자 하는 이유와 배경이 되고, ‘인류의 보편성’은 ‘범용성’으로서 한국에 대한 사전 경험이나 지식, 혹은 관련 정보가 축적되지 않은 영역의 독자들 또한 즉각적으로 공감하고 소통할 할 수 있는 요소로 역할한다. 따라서 하나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고유성과 범용성, 혹은 특수성과 보편성은 경쟁력 있는 작품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덕목으로서, 잘 직조된 씨줄과 날줄 같다. 이는 한국문학의 해외 진출을 위해 연구자가 에이전트로 활동해오면서 지속적으로 견지해오고 있는 주요 가치이기도 하다.

실제로, 문학은 특정 사회와 문화, 혹은 특정 언어권이나 국가에 대한 종합적 사유와 담론에 대한 경험을 문자를 기반으로 한 예술 도구를 통해 시도하고 향유하고자 하는 이에게는 가장 맞춤형 대상이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문학의 지속적 발굴과 소개를 진행하는 가운데, 한국문학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언어권 확대 방안으로 세 가지 의견을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해외 출판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문학작품을 발굴하여 소개할 수 있는 인력양성이다. 둘째,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번역가는 물론 앞으로의 활동에 관심있는 유능한 번역가 확보, 그리고 작가는 물론 출판관계자들과 그들 간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구축이다. 셋째, 언어 권역별 맞춤형 정부의 중장기적 정책지원 전략 수립이다.

17) 권영민, 「한국문학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연구」, 『世界文學比較研究』, 세계문학 비교학회, 1997, 8면.

3.1. 인력양성 정책

한국문학을 비롯한 한국출판문화 콘텐츠의 세계화에 관심을 둔, 혹은 관심을 갖게 될 예비자를 포함하여,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혹은 재직자) 대상으로 해외 진출을 위한 IP(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관리와 그것에 대한 수출진행 업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¹⁸⁾ 한국문학을 비롯한 한국 문화 콘텐츠 해외진출 확대를 통해 산업 극대화를 위한 신속하고 알맞은 국내 인력 대응력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유능한 인력은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편중되는 현상이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는 글로벌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국내 중심의 생산 유통에 한정된 지식·정보를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다 보니 다수의 중소기업의 글로벌 무대로의 자력 진출, 혹은 해외시장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하여 적시에, 그리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활발한 해외 진출·유통에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현재는 물론, 향후 미래를 위한 인력발굴 및 양성을 위해서는 연관성 있는 학과가 소속된 대학이나 대학원, 혹은 특정 공공기관과 연계한 상시교육 프로그램 운용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문학 작품에 대한 해외에서의 번역출판은 물론이고 그것을 원작으로 하는 부가판권(sub-rights)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유통은 결국 유능한 인력이 커버해

18)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해오고 있는 ‘수출 아카데미’ 관련자료. https://www.kpipa.or.kr/p/b/search.php?sfl=wr_subject&stx=%EC%88%98%EC%B6%9C+%EC%95%84%EC%B9%B4%EB%8D%B0%EB%AF%B8&sop=and&gr_id= (방문일: 2024.3.3.) “출판수출전문인력 신규 양성 및 재직자 직무역량강화를 위해 수출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출판 및 수출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로 시작하는 공고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아카데미 프로그램에는 출판수출에 관심이 있는 청년, 예비창업자, 창업초기 유관 직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출아카데미 예비자 과정’, 출판사 혹은 에이전시 재직 중인 관계자(직무무관) 대상의 ‘수출아카데미 재직자(기본) 과정’, 그리고 2023년 수출아카데미 재직자(기본) 과정 수료자 대상의 ‘수출아카데미 재직자(심화) 과정’ 등이 연중 총 3회에 걸쳐 각각 순차적으로 개설되어 진행되었다.

야 하며, 관련 콘텐츠가 글로벌 무대로 확대될수록, 혹은 대중화가 이루어질수록 세계 문화콘텐츠 시장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접근은 더욱 빈번해질 것이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관심 갖고 접근해 오는 다양한 해외 업체의 관심 표명과 제안에 대한 발 빠르고 유효한 전략적 대응 능력을 갖춘 인력만이 유효한 소통과 산업적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유효하고 적절한 대응이 원활히 이루어질수록 한국 출판콘텐츠 진흥사업은 더욱 극대화될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은 환경 하에서, 인력양성 관련한 정책적 제안을 받고서 진행하고자 한다. 그것은 ‘찾아가는 인력양성’ 교육이다. 산업계와 학계가 연계된 것으로, 향후 상용화할 수 있는 플랜 구축을 위해 좀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하나의 기획안으로서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향후 더 나은 안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으로서 역할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서 일정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출판산업진흥을 위한 기구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이 있는데, 이 기관은 ‘찾아가는 도서전’을 통해 매년 새로이 정해지는 특정 국가의 특정 도시로 선발된 한국출판사, 그리고 이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출판사들이 위탁한 도서 중 해당 국가(언어권)에 대한 출판 전문가 그룹이 경쟁력 있는 도서로 엄선 도서를 가지고 찾아가 현지 출판사 관계자들과의 비즈니스 매칭을 통해 그들에게 한국출판저작물에 대한 번역판권 수출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이에 착안한 것이 ‘찾아가는 인력양성’이다.

정부 유관기관에서 분기별, 혹은 연중 정해진 회차에 따라 특정 대학(혹은 해당 대학 특정 학과)으로 ‘찾아가’ 개설된 강좌나 프로그램을 운용하며 해당 대학에서 타 대학 포함, 관심있는 학생(학부생이나 대학원생 모두 해당)을 대상으로 일정시간 한국문학을 비롯한 한국(출판)문화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위한 실무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것이다. 교육은 다년간 현장 경험과 경륜이 있는 출판문화산업 종사자 중 선발된 전문가와 해당 학계의 학자로 구성된 그룹을 통해 진행된다. 이 교육은 두 가지 유효한 성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는 출판산업계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 대상 교육과는 달리 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 대상 교육으로서 출판계에 새로운 인

재 영입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함께 향후 출판계로 진입할 유능한 인재 확보 기회를 얻는다는 의미가 있다. 다른 하나는 대학생들에게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취약하여 미지의 분야로 인식돼 오는 출판계로의 진입 기회를 부여하여 관심을 제공하거나, 혹은 관심은 있었는데 해당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아이디어가 부족하여 진입 시도를 할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인재들에게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맥락에서도 의미가 있다.

3.2. 해외 현지 에이전트·번역가와와의 파트너십 구축

해외 출판시장으로의 접근 전략 중 하나는 해외 각 언어권 현지 출판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특정 대상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그들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들을 거점으로 구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전개하는 것이다. 그것은 현지 주요 출판사의 상세한 환경과 그곳에 소속된 편집자들의 구체적인 이력과 성향을 잘 알고 있어 한국문학 소개 시 최상의 출판사를 확보하는 데 협력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 거점으로 함께 긴밀히 협업할 수 있는 경륜 갖춘 유능한 스카우트(scout)¹⁹⁾, 혹은 에이전트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하나의 전략은 유능한 번역가와 유기적인 소통을 유지하며 관심 갖는 언어권에 진출시키고자 하는 책을 함께 모색하며 준비하는 일이다.

번역가와와 특정 작가나 작품에 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함께 할 수 있고, 협업하게 될 대상(혹은 작품)이 정해지면 그것에 대한 영문 시놉시스와 샘플번역 진행을 추진하여 자료를 확보하고 그것을 가지고 작품소개자료로 활용하며 해당 작품을 번역·출간할 수 있는 출판사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작가, 번역가, 그리고 에이전트가 함께 삼각축을

19) 정기적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일례로, 의뢰인이 관심 가질 만한 것으로, 현지에서 진행되는 주요 저자들과 각 출판사 간 진행되는 판권계약 정보를 비롯하여 주요 신간이나 베스트셀러 정보제공은 물론, 의뢰인이 원하는 업체와의 접촉과 소통을 대행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구사한다.

구축하여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한국문학 해외 소개·진출에 유효한 전략이 된다. 이것은 특정한 한 축에 해당하는 이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작가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의 작품을 소개하는 에이전트와 그 작품을 번역하게 될 번역가 모두에게 필요한 시스템이다.

일례로, 김지영(Chi-young Kim)은 한-영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본 연구자는 김영하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를 위한 영어 번역가로 처음 협력한 이후, 조정란의 『혀』,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황선미의 『마당을 나온 암탉』, 이정명의 『별을 스치는 바람』, 정유정의 『종의 기원』과 『7년의 밤』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작가의 문학작품을 해외에 소개하기 전 그와 사전에 충분한 의견 소통을 하는 가운데 해외 소개 시 필요한 영문자료를 준비하였고, 이후 그는 번역자로서 작업하는 등, 긴밀한 협력자로 함께 하였다. 데버러 스미스(Deborah Smith)의 경우는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통해 처음 협업한 이후 안도현의 『연어』와 북한 반체제 작가인 반디의 『고밭』에 이르기까지 여러 작품을 위해 함께 협력하였다. 안톤 허(Anton Hur)와는 신경숙의 『리진』, 『바이올렛』, 『아버지에게 갔었어』 등을 함께 협업했고, 소라 김 러셀(Sora Kim Russel)과는 신경숙의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공지영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김언수의 『설계자들』, 편혜영의 『재와 빨강』, 『홀』, 『서쪽 숲으로 갔다』 등을 함께 협업하였다. 번역가들과 전략적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하는 것은 작가와 번역자 당사자에게는 물론이고,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에이전트와 해외 출판사 편집자 모두에게 안정적이고 신뢰할만한 기반으로 역할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과거에 번역가는 하나의 ‘섬’처럼 따로 떨어져 작업하는 예가 많았다. 번역가들은 산업 라인 중심으로 합류하여 작가와 에이전트와 삼각축을 형성하며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 전업 번역가로서, 그리고 글로벌 출판시장에서 주요 중심축을 형성하는 하나의 전문인력으로서의 역할자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더 많은 유능한 번역인력이 출판산업 현장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한국문학 번역은 물론 기타 영역의 출판저작물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다양한 콘텐츠를 글로벌 무대로 진출하게 되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게 될 것이다.

3.3. 정부의 중장기적 정책지원 전략 수립

한국문학 세계화를 위한 출판산업 현장에서의 시도와 노력은 2005년 김영하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의 영어판권 미국 진출 계기를 출발점으로,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거쳐 윤고은의 『밤의 여행자들』과 손원평의 『아몬드』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학 작품들이 영미권에서는 물론이고 중남미,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그리고 한국과 인접한 일본과 중국 등 동북아시아와 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권역에 이르기까지 해외 출판산업시장에서 번역·출간되었고, 광범위한 언어권역에서 한국문학이 문학상을 수상하고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산업적 성과²⁰⁾를 내는 상황에 이르렀다.

서두에서 살핀 바와 같이 한국 정부에서도 한국문학 세계화를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문학을 비롯한 한국 출판문화콘텐츠의 해외시장 ‘확대와 개척’을 겸비한 이중전략 구사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본고에서는 해외 권역별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면서 각 언어권 현지 출판시장에서의 한국문학의 경쟁력, 진출 정도, 대중적 인지도 등에 대한 기반을 바탕으로 단기, 혹은 중·장기 진출전략에 따른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논한다. 이것이 하나의 트랙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미 한국문학 진출이 활성화돼 있거나 빠른 속도로 활성화돼가고 있는 지역에 대한 활성화 가속·지속 전략을 구사하는 트랙이다. 지원 규모나 집중도 면에 있어서 차이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해외 전역으로의 진출·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전략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20) 번역판권 계약 시 판권을 구매하는 해외 출판사(Publisher)가 저작권자(Proprietor)에게 지불하는 선인세(‘advance’라고 하며, ‘계약금’이라고도 칭한다.)를 지불한다. 번역본이 현지 출판시장에서 출간된 이후 판매정산 시 기 지불된 선인세가 소진되고 추가인세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작품이 현지 출판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며, 현지 서점이나 매체 등이 집계하는 베스트셀러에 오를 경우엔 국제적인 경쟁력을 지닌 작가, 혹은 작품으로 인정하게 된다.

전략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1단계²¹⁾는 1-2년 내에, 2단계²²⁾는 1-5년 내에, 그리고 3단계²³⁾는 5-10년 내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장영역을 구분하여 각각의 영역에 적절한, 그리고 각 영역의 시장에서 요구하는 대상(특정 카테고리의 작품이나 관련 출판문화 콘텐츠)을 사전 파악·분석하여 그를 바탕으로 전개하는 전략 수립이다. 최근 수년 새 한국에 대한 관심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한국문학 출판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는 아랍어권 시장으로의 진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전략 수립과 그에 따른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제2단계 진출 활성화 전략’ 권역에 포함시킨 나라들로, 2024년 상반기 현

-
- 21) 영미·유럽(서유럽·동유럽), 러시아, 튀르키예, 중남미(브라질·멕시코·아르헨티나 등), 동북아(일본·중국·타이완), 동남아 일부 국가(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이 대체로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영역의 출판시장에서는 현재 한국문학 번역·출판이 자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한국으로부터 각국 현지 출판관계자들에게 소개를 통한 진행은 물론 현지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관심있는 한국작가나 문학작품을 사전 발굴 검토한 후 한국 저작권자에게(작가나 출판사) 관심 타진을 통한 판권계약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언어권역에서는 장기적 전략보다는 단기적으로, 혹은 일상적으로 주요 이슈를 생성·유지해가며 현지 시장을 실효성 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정책 구사가 요구된다.
- 22) 아랍어권(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레바논 등)을 비롯하여, 리투아니아, 세르비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그리고 몽골 등이 해당한다. 이들은 한국문학에 대한 자체적인 발굴과 검토가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으나 한국(출판사나 에이전트)에서 좀 더 관심갖고 현지에서 경쟁력 있거나 관심 가질만한 작품을 사전에 준비하여 소개하거나 한국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출판문화콘텐츠에 대한 홍보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소통을 이어나간다면 해당 기간 내에 발전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다.
- 23) 아세안 커뮤니티 소속 시장에서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각각 일정부분 차이는 있지만, 이미 한국문학과 기타 카테고리 영역의 한국 출판저작물들이 꾸준히 진출하여 공고한 시장을 형성하며 독자 저변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과 같은 지역은 같은 아세안 권역이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장경제 상황 하에서 출판시장 자체가 활성화돼 있지 않으며, 특히 한국출판물이 아직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장기적(3단계 해당)인 진출 확대 전략 구사가 필요하다. 그것의 일환으로, 현지 출판시장과 해외 문학작품 번역출판·유통 현황에 대한 점검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지 대사관이나 문화원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회가 된다면 한-아세안 커뮤니티와의 문화교류 정례화를 통해 지속적인 정보 공유 하에 향후 중장기적인 일정 기간 후에 진출시킬 수 있는 기회 확보가 필요하다.

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출판사들이 소속된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레바논 등을 중으로 긴밀한 소통창구를 개설하여 업체(혹은 공공기관을 통한) 간 소통을 상시화하는 것이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 문학작품에 대한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초창기 시절(문학번역·출간을 위한 언어권 간 소통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인 1990년대에서 해외시장으로 맞춘 비즈니스 전략을 바탕으로 한 한국문학 수출이 본격 전개되기 시작하던 2005년 전후 시기)엔 해외 각국에서 원하거나 선호하는 유형의 작품에 대한 선별적 소개를 통한 진출보다는 한국이 사전 자체적인 기준에 근거한 작품 선정을 통한 소개가 일상적으로 진행됐었다. 이는 현지 독자 정서와 시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국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한 해외진출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산업적으로나 문학 전파·공유 차원에서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한국문학 소개와 현지 번역출간에 목표를 둔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환경에서는 한국문학이 각 언어권 현지 서점에서 자체적인 경쟁력에 기반한 유통·판매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중요한 것은 수치상 어떤 언어권에 몇 작품이 소개되어 번역출판됐느냐가 아니라 현지 독자와의 꾸준히 조화를 이루며 다양한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각자의 자리를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글로벌 현장에서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고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과 각 언어권 시장에서 유효한 성과를 축적해가면서 정부정책과 산업현장에서의 비즈니스 구사 전략은 독자를 기반으로 시장 친화적으로 진화·발전해 오고 있다.

4. 나가는 글

세계가 한국문학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출판 저작물 수출을 위한 해외 소개 초창기 시기²⁴⁾, 그리고 책을 추천하고 검토용 자료를 제공해도

24) 본 연구자가 1995년에서 2000년 당시, 한국문학에 대한 해외수출 시도를 했으나 영미·유럽권역에서 한국문학은 물론 한국문화와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

해외 출판관계자들 대다수가 좀처럼 반응하지 않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나면서 글로벌 무대에서 파워를 발휘할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판단되는 책을 소개할 때 조심스럽게 관심을 보이며 한국에서 제공한 자료를 검토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²⁵⁾ 그 후 해외 출판인들은 한국으로부터 책을 추천·소개받기를 원하는 상황으로 입장이 진화됐고,²⁶⁾ 이제는 자발적으로 한국을 찾아 출판사, 에이전트, 그리고 작가를 직접 만나고 싶어하는 상황으로 발전하였다. 지난 20년여에 걸친 글로벌 무대에서의 한국문학 해외 진출에 대한 발전사이다. 그간 수많은 해외 출판사들이 한국출판저작물에 대한 번역출판이 자사가 소속된 현지 출판시장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보여오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경험해오고 있다. 그것을 가장 잘 아는 그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 시절로 접어든 것이다. 그간의 정부와 공공기관의 출판 정책과 전략, 그리고 한국 출판시장에서의 자발적인 노력과 새로운 시장 개척이 가져온 중간 결실이다. 한국출판은 이제 본격적인 세계 중심 궤도로 진입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펼침의 전략과 꾸준한 지구력 확보를 위한 ‘투트랙(two track)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글로벌 무대에서는 한국문학을 원작으로 하는 또 다른 형태의 문화콘텐츠 제작 및 유통이 일상이 돼가고 있다. 이는 한국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 문화산업 현장에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특히 드라마나 영화 등, 문화콘텐츠 제작과 유통이 언어권 간, 혹은 국가 간 경계 없이 상호 긴밀한 협력체제 하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²⁷⁾

고 번역판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파트너로서보다는 자사의 출판저작물을 수출하는 매력적인 시장의 상대로 역할이 한정됐던 시기였다.

25) 2000년에서 2010년이 바로 이 시기이다.

26)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신경숙과 황선미의 문학이 영미권을 중심으로 세계 출판시장에서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해가던 시기이다.

27) 지난 수년 간, 한국문학을 원작으로 한 TV드라마, 영화, 그리고 공연(연극, 오페라, 뮤지컬 등) 등의 판권수출이 진행되면서 세계 문화콘텐츠 시장에서 한국출판콘텐츠의 이용과 그 역할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Please Look After Mom)』와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I'll Be Right There)』, 김연수의 『설계자들(The Plotters)』, 그리고 편혜영의 『홀(The Hole)』 등의 영미권으로의 영상판권 진출이 그 사례이다. 규모는 작았지만 황선

이는 향후 일일이 그 규모를 헤아리는 것이 무의할 정도로 많은 양의 한국출판저작물이 다양한 문화콘텐츠 포맷으로 제작되어 한국을 포함한 세계 문화산업 시장에서 유통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소설 문학이나 만화 형태의 출판콘텐츠 뿐만 아니라 비소설 영역의 출판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그에 대한 전략적 비즈니스 모색과 전개가 유의미한 상황이 되었다. 한국사, 철학, 종교, 그리고 의상, 음식, 의료, 예술 등, 외에도 다양한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담은 출판저작물이 다큐 영상으로도 제작·유통되어 전 세계 모든 이들이 공유하며 즐기게 된다면 출판산업 활성화는 물론 관광산업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핵심 산업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문학번역 중심의 번역가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분야의 출판콘텐츠에 관심 갖고 활발히 번역할 수 있도록 번역자풀을 확대하고 그를 위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본고는 앞서 언급된 작품들을 비롯하여 최근 박상영의 『대도시의 사랑법(Love in the Big City)』, 손원평의 『아몬드(Almond)』, 정보라의 『저주토끼(Cursed Bunny)』, 그리고 김호연의 『불편한 편의점(Uncanny Convenience Store)』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한국문학의 해외진출 사례를 통해 한국문학의 위상이 세계문단과 출판시장에서 크게 격상되었으며, 문학의 장르도 일반 성인문학에서 청소년대상문학(YA, Young Adult), 그리고 SF판타지문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지는 가운데 그 개성이 해외 독자들에게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것을 문학상이나 베스트셀러에 오른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향후 한국 출판업계는 물론 관련 공공기관이 한국문학 세계화 확대를 위한 유효한 전략적 정책 수립과 지원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문학 해외진출을 위한 출판산업 현장 관계자들의 노력이 지난 20년간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점검하면서, 1백여 년 전 조선문학의 해외진출을 위한 노력과 시도가 끊임없이 각각 변화된 시대와 시장 환경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이어져 왔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성과가 바로 과거 선구자들의 비전이었으며 그들이 품었던 비전이 지금 현장 전문가들이 앞으로 이루어야 할 과제와도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미의 『마당을 나온 암탉(The Hen Who Dreamed She Could Fly)』은 뮤지컬로 제작되어 미국에서 공연된 바 있다.

상기하였다. 이에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에 내걸었던 ‘한국문학 해외 진출’이라는 비전이 이제는 문학을 통해 세계와의 예술적 공유와 소통을 넘어 ‘출판시장에서의 산업적 성과’와 영화 드라마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한국문학을 원작으로 하는 또 다른 형태의 ‘문화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년간 진행된 한국 소설문학의 영미권 진출 사례들만을 중심으로 살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다음 기회에는 한국 시문학에 대한 해외진출 사례 연구는 물론, 연구 언어 권역도 영미권 이외, 일본 중국 타이완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아세안(동남아시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의 중동(아랍어권),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등의 동유럽,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서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이 속한 북유럽, 그리고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의 중남미 권역에 대한 연구로 이어가고자 한다.

[Abstract]

Korean Literature in the World: A Study on the Overseas Market Expansion Strategy for Korean Literature

Lee Koo-yong(Kyung Hee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overseas expansion of Korean literature over the past 20 years, from 2005, when Korean literature opened the door to the global publishing market, to the first half of 2024, when Korean literature is being referred to as 'K-literature' on the global stage, focusing on the works of some representative Korean authors. Since 2005, when Kim Young-ha's *I Have the Right to Destroy Myself* opened the way for Korean literature to be exported, the status of Korean literature has been greatly enhanced in the global publishing markets through the works of Kyung-sook Shin's *Please Look After Mom* and Han Kang's *The Vegetarian*, as well as Won-pyung Sohn's *Almond* and Ho-Yeon Kim's *Uncanny Convenience Store*, while the genres of Korean literature have diversified from the literary novels for adult to the novels for YA(Young Adult), I examined how the individuality of Korean literature resonates with overseas readers through various literary awarded titles and bestsellers, and proposed a strategic plan to foster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for the globalization of Korean literature and a differentiated entry strategy for each language territory of the world through organic cooperation

between the Korean publishing industry and government agencies. Ultimately,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meaningful vision for the expansion of Korean literature into overseas language areas through a study of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literature in the global publishing market.

Key words :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and Publication, Global Publishing Market, K-Literature, Publishing Human Resource Development, Korean Publishing Contents Overseas Expansion Strategy

[참고문헌]

■ 단행본

- 김영민, 『한국근대문학비평사』, 소명출판, 2012, 437면.
- 김육동, 『세계문학이란 무엇인가』, 소명출판, 2020, 152면.
- , 『외국문학 연구회와 『해외문학』』, 소명출판, 2020, 152면.
- , 「최남선·이광수·김억과 세계문학」, 『궁핍한 시대의 한국문학: 세계문학을 향한 열망』, 연암서가, 2022, 99면.
- 백철, 『문학의 개조』, 신구문화사, 1959, 299면.
- 이구용, 『소실되는 남자』,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10.
-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엮음, 「출판 한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한국출판」, 『2021 한류백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 2022, 174-196면.
-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엮음, 「출판 한류: 한국출판, 다양한 변신으로 글로벌 중심에 서다」, 『2020 한류백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 2021, 188-211면.
-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엮음, 「출판 한류: 한국문학, 독자 자변을 확대하다」, 『2018 한류백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 2019, 235-260면.
- 이명재, 「서문을 대신하여」, 백철 『인간 탐구의 문학』, 창미사, 1986, 4면.

■ 논문 및 기타 자료

- 권영민, 「한국문학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연구」, 『世界文學比較研究』, 세계문학비교학회, 1997, 8면.
- 설성경, 「한국 문학의 세계화 방안」, 『문화정책논총』 제6집 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994, 124-149면.
- 이구용, 「외국 독자에게 K-문학을 소개한다는 것」, 『문학사상』 2023년 2월호, 제52권 2호, 통권 제604호, 문학사상사, 2023, 72-81면.
- , 「세계 속의 한국작가」, 『문학사상』 2017년 9월호, 제46권 9호, 통권 제539호, 문학사상사, 2017, 56-64면.
- 이형진, 「한국문학 번역의 문화번역」, 『번역학연구』 2016년 가을 제17권3호, 한국번역학회, 2016, 139-164면
- 정명교,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향한 문학적 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 23 No.2, 국제비교한국학회, 2015, 216면.
- 정정호, 「백철의 국제문화교류활동에 관한 시론(試論)」, 『우리文學研究』 25집, 우리문학회, 2008, 409-433면

정인섭, 「해외문학과를 전후한 외국문학의 수용」, 『광장』, 111호, 세계평화교수협의회, 1982, 94-98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독일 출판정책 연구」, 2015,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117면.